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WSJ: 이번 주 경제 일정 및 실적 발표
- WSJ: 인플레이션 우려로 계층별 소비 행동에 차이
- WSJ: 미 기업들도 관세 불확실성에 지출 축소

### [미국 금융]

- YahooFinance: '관세 일시 완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와 증시 우려'
- JP모건: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부정적인 투자 심리로 바뀌다...S&P 500 전망도 어두워
- WSJ: 중국발 미국행 화물 선적, '중단'될 정도로 급감

### [무역 전쟁]

- Bloomberg: 트럼프, 관세 여파 축소 위해 신규 소득세 감소 검토
- Bloomberg: 중국, 트럼프 관세 타격에 수출업체 지원
- WSJ: 골드만삭스, 미국 관세 대응 관련 일본 등 국가들에 조언

### [오일]

- WSJ: 원유 가격 하락, 미국 세일 생산 성장 둔화시킬 수 있어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Business: DHL, 미국 소비자 대상 800달러 이상 글로벌 배송 재개
- Bloomberg: IBM, 향후 5년간 미국에 1500억 달러 투자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미국 경제]

### WSJ: GDP, Jobs Report, Big Tech Earnings: What to Watch This Week

#### 이번 주 경제 일정 및 실적 발표

- 월요일: 실적 발표 – 코카콜라, GM, UPS
- 화요일: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 지수,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미국 구인 건수 발표 / 실적 발표 – 비자, 스타벅스
- 수요일: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 발표,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발표 / 실적 발표 –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 목요일: 제조업 PMI 지수 발표 / 실적 발표 – 아마존, 애플
- 금요일: 4월 신규 일자리 수 발표, 트럼프 감세(800달러 미만) 중단 조치 시행

WSJ 기사

## **WSJ: Inflation Fear Is Making Some People Spend More—and Others Less**

### **인플레이션 우려로 계층별 소비 행동에 차이**

-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관세에 대한 우려로 인해 소비자 계층마다 지출 행태가 달라지고 있다.
- 저소득층의 경우, 향후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리 물품을 구매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또한 여행 및 레저 관련 지출은 둔화되고 있는 반면, 3월 내구재 구매는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WSJ 기사

## **WSJ: America Inc. Slashes Spending as Tariff Uncertainty Swirls**

### **미 기업들도 관세 불확실성에 지출 축소**

- 미국 기업들 역시 교역 불확실성과 관세 영향으로 인해 전반적인 지출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 대규모 해고는 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업들은 여행, 비즈니스 상담 비용, 인력 채용 등과 관련한 지출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 일부 기업들은 올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지출 축소 계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WSJ 기사

### **[미국 금융]**

## **YahooFinance: Why the tariff relief stock rally isn't shaking Wall Street's biggest bear**

### **‘관세 일시 완화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제와 증시 우려’**

- “증시가 관세 완화로 랠리를 보일 수 있겠지만,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신중하게 예의 주시해야 한다.”
- 2025년을 앞두고 약세론자였던 BCA Research의 선임 전략가인 Peter Berezin은 “트럼프의 정책으로 관세 상승 폭에 대한 일부 완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미국 경기 침체의 가능성성이 줄어들었지만, 경미한 침체 가능성조차 현재 증시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증시에 대한 리스크는 하향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는 2022년, 대부분의 월가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다고 덧붙였다.
- Berezin은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을 75%로 보고 있으며, S&P 500 지수는 현재 5,525에서 4,450으로 예상하고 있다.

YahooFinance 기사

## JP모건: Regime change drives negative sentiment shift 정책 기조 변화로 인해 부정적인 투자 심리로 바뀐다...S&P 500 전망도 어두워

- 아래는 JP모건이 투자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요약이다.
- 응답자들의 컨센서스는 경기 침체 리스크보다는 스테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절반 이상의 응답자는 올해 금융시장에 큰 리스크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대다수의 응답자는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2%~2.5%가 아닌 3% 이상으로 고착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높은 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올해 말까지 4.25%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 투자자들은 올해 말까지 달러 약세를 예상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58%는 유로화 대 달러 환율이 1.11을 넘어서고, 달러 대 엔화 환율은 140엔 아래로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응답자 45%는 브렌트유가 현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보며, 31%는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금값이 올해 말까지 온스당 3,200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 S&P 500 지수가 올해 최고치로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며, 9%의 응답자만이 선진국 증시가 올해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 이처럼 S&P 500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응답자의 절반은 AI 관련 테마 종목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겠다고 답했다. 반면, 32%는 관련 투자를 줄이고 공매도를 하겠다고 밝혔으며, 19%는 중국 AI 관련 투자로 분산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포트폴리오 구성과 리스크 관리에 AI를 활용하는 비율은 2%에 불과해, AI의 투자 결정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대신, 70%는 주로 업무 효율성과 고급 검색을 위해 AI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중국에 대한 리스크 축소 비율은 여전히 낮으며, 35%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 가을 조사와 비슷한 결과다. 리스크를 늘리겠다는 비율(27%)은 리스크 축소 답변자 비율(18%)보다 높았다. 20%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에 대한 관심은 후퇴하는 모습이다. 응답자의 30%만이 그런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42%는 ESG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나머지 비율은 ESG 전략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다양성·포용성(DEI)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은 4%에 불과했고, 83%는 이러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거나 다른 이름으로 재브랜딩하겠다고 밝혔다.

J.P. Morgan 기사

## WSJ: Cargo Shipments From China to U.S. Slide Toward a Standstill 중국발 미국행 화물 선적, '중단'될 정도로 급감

- 의료, 전자제품, 가구 등 중국산 수출품들의 미국행 선적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 많은 주문 계약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 선적 화물 회사인 Flexport에 따르면, 트럼프가 지난 4월 9일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 지난주에는 중국산 화물 선박 주문이 60% 감소했다고 밝혔다.

- 현재 중국 제조업체들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중국산 제품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대신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고 있다.
- 덴마크의 선박 데이터 관련 회사 Sea Intelligence는 다음 주, 중국산 화물이 서부 항만에 선적되는 주문량이 약 28%, 동부 항만의 주문량은 약 4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 한편, 소매업체들은 올 가을 신학기와 가을·겨울 홀리데이 제품을 준비해야 하는 올 여름 피크 선적 시즌을 앞두고 수입 결정을 서두르고 있다.

WSJ 기사

### [무역 전쟁]

#### **Bloomberg: Trump Floats New Income Tax Cut in Bid to Ease Tariffs Bite 트럼프, 관세 여파 축소 위해 신규 소득세 감소 검토**

-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는 어제 일요일 관세 정책의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연간 소득이 2만 달러 미만인 미국인들에게 소득 세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 트럼프는 예전에 관세로 발생한 세수를 감세 재원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그러한 성과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 그는 이날 자신의 SNS인 Truth Social에서 “관세가 인하되면 많은 미국인들의 소득세가 크게 줄어들거나 아마도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며, 연소득 20만 달러 이하인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 **Bloomberg: China Vows Steps to Ease Exporters' Pain as Trump's Tariffs Hit**

#### **중국, 트럼프 관세 타격에 수출업체 지원**

- 중국은 트럼프의 관세 인상으로 타격을 입은 수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유지, 특별 신용 도구, 시장 다변화 지원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없다고 부인하며, 올해 5%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자신감을 표했다.
- 미국이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발 미국행 화물선은 4월 초 대비 약 40% 줄었다.
- 시진핑은 국내 소비 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계 자산이 줄어들며 소비자 신뢰도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다.
- 중국은 일부 미국 수입품에 대한 125% 보복 관세 철회를 검토하며 무역 전쟁의 영향을 줄이고자 한다. IT, 헬스케어, 항공 부문 일부 기업은 관세 면제를 받았으며, 이는 중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 **WSJ: Goldman Sachs Is Advising Countries Scrambling to Please Trump on Tariffs**

### **골드만삭스, 미국 관세 대응 관련 일본 등 국가들에 조언**

- 현재 일본, 프랑스, 사우디 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들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골드만삭스에 조언을 구하고 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 여파로 인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골드만삭스의 조언을 요청하고 있다.
- 예를 들어, 골드만삭스는 남아프리카 정부에 기업들의 흑인 소유권 및 토지 압수와 관련된 현행 법률을 수정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WSJ 기사

### **[오일]**

## **WSJ: Lower Oil Prices Could Curb Growth in U.S. Shale Production**

### **원유 가격 하락, 미국 세일 생산 성장 둔화시킬 수 있어**

- 미국 세일 오일 생산은 유가 하락으로 성장 둔화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현재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가격은 새로운 유정 시추에 필요한 수익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60~65달러 수준이다.
- 트럼프의 무역 전쟁과 백악관의 생산 압박이 유가 하락을 부추겼으며, 세일 오일은 단기 가격 변동에 가장 취약하다.
- 전문가들은 세일 산업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며 최적의 유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매장 개발 비용이 증가했다고 분석한다.
- 낮은 유가로 인해 석유 기업들은 자본 지출과 개발 계획을 연기하고 있으며, 글로벌 상류 개발 지출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장기적으로 규제 완화와 기술 발전이 세일 산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WSJ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Business: DHL will restart global shipments worth over \$800 to US consumers**

### **DHL, 미국 소비자 대상 800달러 이상 글로벌 배송 재개**

- DHL은 800달러 이상의 기업-소비자(B2C) 글로벌 배송을 4월 21일부터 일시 중단했다가 즉시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 미국이 2,500달러였던 관세 면제 한도를 800달러로 낮추면서 정식 통관 절차가 급증해 중단이 발생했다.

- DHL은 통관 처리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 상무부 등 당국과 협의해 규정을 최적화했다.
- 한편, 800달러 이하 국제 배송에 적용되던 관세 면제(de minimis) 혜택은 5월 2일 종료된다.
- 이로 인해 테무(Temu)와 쉬인(Shein) 같은 중국 기반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이미 많은 상품 가격을 인상했다.

CNNBusiness 기사

## **Bloomberg: IBM Plans to Invest \$150 Billion in US Over Next Five Years IBM, 향후 5년간 미국에 1500억 달러 투자**

- IBM은 향후 5년간 미국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 이 중 300억 달러 이상은 메인프레임과 양자 컴퓨터 연구개발에 투입된다.
- IBM은 미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컴퓨팅 리더로서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한다.
- 투자에는 뉴욕주에서 제조되는 메인프레임 시스템과 미국 내 양자 컴퓨터 설계 및 조립이 포함된다.
-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여러 기업의 미국 내 투자 계획과 맥락을 같이한다.

Bloomberg 기사

### [보고서]

## **미국 증시, 51년만에 '대통령 취임 100일' 최악의 성적표 '전례없는 호황' 약속했지만 트럼프 취임 후 주가 8% 하락 "올해 미국 성장을 1% 미만" 전망도**

오는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되지만 그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미국 주식시장은 1974년 이후 51년 만에 최악의 '100일 성적'을 내고 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미국인들에게 '전례 없는 호황'이 있을 것임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게 가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미국 증시 대표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지난주 반등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약 8% 하락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